

## 농촌지역 초등학교생들의 음주실태

이 인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음주와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수준을 넘어 술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가 비단 남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학생의 음주율도 남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량의 경우 남학생은 꾸준한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 Sports, 1996).

청소년 음주는 학업부진과 사소한 불법행위에서부터 폭력과 절도, 성범죄 및 교통사고(오토바이 및 음주운전사고) 등의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으로서의 청소년 자신들에게 크나큰 개인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소량의 음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즐거운 기분을 고양시키고,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의사 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하

여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성인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어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알코올을 경험할수록 나이가 들어 과음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결국에는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인생의 패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Kim, 1991).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997년부터 알코올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18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첫 음주시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입학 전이 67%로 가장 많고, 특히 15.4%에 이르는 학생이 12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음주의 저 연령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 예방협회, 1998).

이렇듯 음주율이 높아지고, 음주 시작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술에 대한 관대함에 있다. 예로부터 제사나 명절과 같은 친지 모임에서 술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서로간에 술을 권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면서 어릴 적부터 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동안 자신이 행할 건강습관이

\* 극동정보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lee001@hanmail.net)

다져지고,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이 때에 익힌 지식과 태도는 나이가 들어서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음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장의 단기적인 효과의 측면보다는 미래에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음주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이나 알코올 중독 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Bae, 1994; Han, 1998; Jung, 1989; Jung, 1998)가 대부분이었고,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서울(Moon et al., 2001a; Moon et al., 2001b)이나 부산(Kan & Kim, 2000)과 같은 대도시 거주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전부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도시와 농촌의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대도시 초등학교생을 연구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농촌지역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음주 행위에 관련된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농촌지역 초등학교생들에게 적합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 초등학교생들에게 적합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을 파악한다.
- 2) 농촌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률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농촌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률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농촌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 경험에 따른 장애 음주 의사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U 군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의 4,5,6학년 학생 734명이었다.

### 2. 자료수집 절차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5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반송 봉투와 함께 배부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시 담임교사가 지켜 볼 경우 거짓된 응답을 할 것을 우려하여 보건교사가 교실에 들어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56부(94.5%)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734부(91.8%)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Moon 등(2001a)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실태를 파악하는데 사용했던 도구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환경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 등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음주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의 차이는 Chi-square test 및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4학년이 32.2%, 5학년이 33.8%, 6학년이 34.1%였다. 성별 분포에 있어 남학생이 54.8%, 여학생이 45.2%였고, 종교는 기독교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불교 21.9%, 천주교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잘 산다 26.7%, 못 산다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우 관계에 있어 친구수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0.7%였고, 친구가 많다는 응답은 46.0%였으며 친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3%였다.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5.4%였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40.7%였으며 힘들고 싫다는 응답은 3.8%였다. 학교성적에 있어서 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2.7%였고,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5.7%,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1.6%였다. 형제자매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4.5%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34)

Characteristics	Class	N(%)
Grade	4	236( 32.2)
	5	248( 33.8)
	6	250( 34.1)
Sex	male	402( 54.8)
	female	332( 45.2)
Economic level	high	196( 26.7)
	middle	516( 70.3)
	low	22( 3.0)
Religion	protestant	199( 27.1)
	catholic	133( 18.1)
	budchism	161( 21.9)
	others	21( 2.9)
	none	220( 30.0)
Friends	many	338( 46.0)
	moderate	372( 50.7)
	small	24( 3.3)
School life	interesting	407( 55.4)
	moderate	299( 40.7)
	uninteresting	28( 3.8)
School record	high	189( 25.7)
	middle	460( 62.7)
	low	85( 11.6)
Brother & Sister	yes	400( 54.5)
	no	334( 45.5)

## 2.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

대상자의 거주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이 5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파트 지역 33.7%, 공장, 상가 및 기타 지역이 12.1%를 차지하였다. 부모 생존여부

에 있어 부모가 모두 살아계신 경우는 93.1%였고, 편 부모인 경우 6.4%,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경우는 0.5%였다.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98.9%였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64.0%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에 있어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통이다 31.3%, 잘 모르겠다 3.9%, 적다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있어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그저그렇다 32.7%, 불안하다 1.0%였다. 부모 중 음주를 하는 분이 있다는 응답은 81.5%였다<Table 2>.

<Table 2>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34)

Characteristics	Class	N(%)
Residence	seperate house	398( 54.2)
	apartment	247( 33.7)
	factorial, commercial region	89( 12.1)
	both	683( 93.1)
Parents	one	47( 6.4)
	none	4( 0.5)
Father's job	yes	696( 98.9)
	no	8( 1.1)
Mother's job	yes	465( 64.0)
	no	255( 35.9)
Parents' attention	much	458( 62.4)
	moderate	230( 31.3)
	small	17( 2.3)
	others	29( 3.9)
Home atmosphere	good	487(66.3)
	moderate	240(32.7)
Parents' drinking	bad	7( 1.0)
	yes	598(81.5)
	no	136(18.5)

## 3. 대상자의 음주 실태

### 1) 대상자의 음주 관련 특성

대상자 중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은 27.2%였고,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72.8%였다. 음주 경험자들이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는 3, 4학년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학년 18.7%, 5학년 14.0%, 입학 전 12.8%, 2학년 10.3%, 6학년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음주를 한 장소로는 가족모임이나 행사가

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타 34.8%, 제사나 명절 때가 20.6%, 친구집 3.6%의 순이었다.

처음 마신 술로는 맥주가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주 31.1%, 막걸리 16.1%, 과일주 9.4%, 기타 4.3%, 양주 1.7%의 순이었다.

처음 음주 시 기분으로는 맛이 없었다가 5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무 느낌도 없었다 12.7%, 좋았다 10.3%, 기타 8.9%, 불안했다 6.4%, 힘들었다 3.6%의 순이었다.

음주 동기는 실수로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호기심에서 29.6%, 어른의 권유로 23.4%,

기타 8.6%, 멋있어 보여서 2.4%의 순이었다.

음주시 동반자로는 부모가 41.2%였고, 다음이 혼자서 23.8%, 친척어른 14.6%, 기타 11%, 친구나 형 9.4%의 순이었다<Table 3>.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

학년별 음주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4학년이 69.9%, 5학년이 73.0%, 6학년이 75.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음주 경험은 남학생이 80.8%로 여학생의 63.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

경제수준에 따른 음주 경험은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 77.3%였고,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69.4%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에 따른 음주 경험은 불교를 믿는 학생의 경우 78.9%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를 믿는 학생의 경우 67.8%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우관계에 따른 음주 경험은 친구가 거의 없는 학생의 경우 75.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인 경우는 72.3%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생활에 따른 음주 경험은 학교생활이 힘들고, 싫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78.6%였고,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69.8%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성적에 따른 음주 경험은 학교성적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음주경험이 83.5%로 가장 높았고,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70.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음주 경험은 형제자매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73.3%였고, 형제자매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72.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5)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

대상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음주 경험은 단독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음주 경험률이 7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공장, 상가 및 기타 지역 74.2%, 아파트 지역이 64.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Table 3> Drin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34)

Characteristics	Class	N(%)
Drinking experience	yes	534(72.8)
	no	200(27.2)
First drinking time	<1 grade	67(12.8)
	1	98(18.7)
	2	54(10.3)
	3	99(18.9)
	4	99(18.9)
	5	73(14.0)
	6	33( 6.3)
First drinking place	religious service	110(20.6)
	family meeting	219(41.0)
	friend's house	19( 3.6)
	others	186(34.8)
First liquor kind	soju	166(31.1)
	bear	200(37.5)
	makkoli	86(16.1)
	fruit liquor	50( 9.4)
	yangju	9( 1.7)
	others	23( 4.3)
Mood as drinking	good	55(10.3)
	tired	19( 3.6)
	anxious	34( 6.4)
	tastless	310(58.1)
	no feeling	68(12.7)
	others	48( 8.9)
First drinking reason	recommendation of adult	125(23.4)
	to be full of grace	13( 2.4)
	out of curiosity	158(29.6)
	by mistake	192(36.0)
	others	46( 8.6)
Attending person as first drinking	parents	220(41.2)
	friend, brother	50( 9.4)
	relatives	78(14.6)
	by oneself	127(23.8)
	others	59(11.0)

•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의 음주실태 •

<Table 4> Drin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34)

Characteristics	Class	Experience of drinking		$\chi^2$	p
		yes	no		
Grade	4	165(69.9)	71(30.1)	1.721	.423
	5	181(73.0)	67(27.0)		
	6	188(75.2)	62(24.8)		
Sex	male	325(80.8)	77(19.2)	29.370	.000
	female	209(63.0)	123(37.0)		
Economic level	high	136(69.4)	60(30.6)	4.972	.083
	middle	381(73.8)	135(26.2)		
	low	17(7.3)	5(2.7)		
Religion	protestant	135(67.8)	64(32.2)	4.610	.330
	catholic	99(74.4)	34(25.6)		
	buddhism	127(78.9)	34(21.1)		
	others	15(7.4)	6(28.6)		
Friend	many	247(73.1)	91(26.9)	0.116	.944
	moderate	269(72.3)	103(27.7)		
	small	18(75.0)	6(25.0)		
School life	interesting	284(69.8)	123(30.2)	4.143	.126
	moderate	228(76.3)	71(23.7)		
	uninteresting	22(78.6)	6(21.4)		
School record	high	134(70.9)	55(29.1)	5.659	.059
	middle	329(71.5)	131(28.5)		
	low	71(83.5)	14(16.5)		
Brother & sister	yes	293(73.3)	107(26.8)	0.110	.740
	no	241(72.2)	93(27.8)		

<Table 5> Drinking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n=734)

Characteristics	Class	Experience of drinking		$\chi^2$	p
		yes	no		
Residence	seperate house	310(77.9)	88(22.1)	15.003	.001
	apartment	158(64.0)	89(36.0)		
	factorial, business	66(74.2)	23(25.8)		
	region	534(72.8)	200(27.2)		
Presence of parents	both	494(72.3)	189(27.7)	1.288*	.502*
	one	36(76.6)	11(23.4)		
	none	4(100.)	0( 0.0)		
Father's job	yes	507(72.8)	189(27.2)	0.019*	.891*
	no	6(75.0)	2(25.0)		
Mother's job	yes	334(73.6)	120(26.4)	1.402	.236
	no	177(69.4)	78(30.6)		
Attention of parents	much	317(69.2)	141(30.8)	7.783	.020
	moderate	180(78.3)	50(21.7)		
	small	37(80.4)	9(19.6)		
Home atmosphere	good	341(70.0)	146(30.0)	7.049*	.029*
	moderate	189(78.8)	51(21.3)		
	bad	4(57.1)	3(42.9)		
Parents' drinking	yes	448(74.9)	150(25.1)	7.627	.006
	no	86(63.2)	50(36.8)		

\* Fisher's exact test

차이가 있었다(p=.001).

부모의 생존유무에 따른 음주 경험은 부모가 모두 안계신 경우 100%였고, 편부모 76.6%,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 72.3%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른 음주 경험은 아버지의 직

업이 없는 학생의 경우 75.0%였고, 직업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72.8%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음주 경험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69.4%,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73.6%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관심정도에 따른 음주 경험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80.4%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78.3%, 많다 69.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20$ ).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음주 경험은 가정의 분위기가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78.8%, 화목하다 70.0%, 불안하다 57.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29$ ).

부모의 음주 여부에 따른 자녀의 음주 경험은 부모가 음주를 하는 경우 74.9%였고, 부모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3.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6$ )<Table 5>.

#### 6) 미래 음주 의사

대상자의 미래 음주 의사는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이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앞으로 음주를 하겠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적었다( $p=.000$ ). 음주 경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5%, 음주를 하겠다 6.5%, 잘 모르겠다 23.0%였으나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1.7%, 앞으로 음주를 하겠다 14.6%, 잘 모르겠다 33.7%였다<Table 6>.

### IV. 논 의

본 연구결과 초등학생들의 음주 경험은 72.8%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Kan 과 Kim(2000)의 20.7%나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Moon 등(2001a)의 55.4%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Black(1994)이 11~12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98.5%가 이미 중학교를 갈 때쯤 음주를 경험한다는 결과에 비해서는 낮은 경험률이었다.

음주 경험자들이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는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18.9%로 37.8%였으며 다음으로 1학년, 5학년, 입학 전, 2학년, 6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Moon 등(2001a)의 연구결과에서 3학년 18.4%, 4학년 24.7%로 3,4학년 때가 43.1%를 나타냈던 것에 비교하여 다소 낮은 결과였으나 첫 음주 경험이 5학년에서 24.8%로 가장 많았던 Kan 과 Kim(2000)의 연구결과에 비해 대다수의 학생의 첫 음주경험 시기가 좀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수록 아동기에 음주를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중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므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코올 교육이 소개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Haydock(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처음 마신 술의 종류로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가 37.5%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의 맥주 경험률인 48.5%에 비해서는 낮은 결과였다. 소주나 양주와 같은 알코올 함량이 높은 술을 마신 경험은 32.8%로 서울 초등학생들의 28.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막걸리나 과일주와 같이 마시기에 순한 술을 마신 경험 또한 25.5%로 서울 초등학생들의 2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막걸리나 과일주가 우리나라 전통주인 만큼 농촌지역의 경우 곡식이나 과일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술을 직접 담그는 풍습이 아직 남아있어 술을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처음 술을 마셨을 때의 기분에 대해 맛이 없었다 혹은 아무 느낌도 없었다, 불안했다 등의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들에게 있어 음주가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Table 6> Future intention to drinking of subjects

(n=734)

Class	Experience of drinking		x <sup>2</sup>	p
	yes	no		
will not drink	276(51.7)	141(70.5)	22.20	.000
will drink	78(14.6)	13(6.5)		
don't know	180(33.7)	46(23.0)		

기분이 좋았다는 응답도 10%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과 장기간의 음주 후에 저절로 음주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술이 어떤처럼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음주를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며 나아가 약물로 인해 손상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Ministry of Culture & Sports, 1993). 그런 의미에서 첫 음주에서 기분이 좋았다는 10%의 학생들을 고려하여 음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될 수 있도록 음주예방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 동기로는 실수로 마셨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호기심에서 29.6%, 어른의 권유가 23.4%를 차지하였다. 선행연구(Moon et al., 2001a) 결과에 의하면 음주 동기로서 일시적인 호기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oon 등(2000)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비디오나 만화, 컴퓨터 게임 등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교육매체를 이용하여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전달한다면 호기심에서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좀더 감소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수로 마셨다는 응답이 36.0%였던 것은 조금은 과장된 결과로 여겨지며 이는 호기심에서 술을 마셨지만 설문지 작성시 솔직한 응답을 회피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처음 음주시 동반자는 41.2%가 부모였으며 친척 어른과 마신 경우도 14.6%로 나타났다. 그러나 9.4%가 친구나 형과 마셨으며 23.8%는 혼자 마신 것으로 나타나 Moon 등(2001a)의 연구에서 3.8%가 친구나 형, 그리고 20.7%가 혼자 마셨다는 결과에 비해 어른을 동반하지 않고, 또래 끼리 혹은 홀로 술을 마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Korean anti-drug campaign center(1993)의 조사결과에서는 음주시의 동반자로서 친구가 61.9%를 차지하여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집단적 사회화 경향이 큰 만큼 친구들과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단순히 호기심에서 음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른들이 없는 가운데 행해지는 음주는 음주시의 예절이나 음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래의 음주 습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혼자서 장시간 집안에 머물게 하기 보다는 친구나 가족들과 상호작용할 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Kan & Kim, 2000; Lee et al., 1997; Moon et al., 2001a)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주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고, 우리나라 전통상 남자에게 음주가 더 허용적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학년, 종교, 교우관계, 학교생활, 학교성적,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음주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생활이 힘들고, 싫다는 학생이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9%정도 음주 경험이 높았고, 학교성적이 나쁜 학생이 좋은 학생에 비해 12%정도 음주 경험이 높았던 결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에 따른 음주 경험은 거주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공장, 상가 및 기타 지역, 아파트 지역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장이나 상가 지역의 경우 거주지의 주변 여건이 주택지역과는 달리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길 수 있는 유해환경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단독주택지역의 학생에게서 음주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부모의 생존유무에 따른 음주 경험은 부모가 모두 없거나 편부모만 있는 학생의 음주 경험이 부모가 모두 있는 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Moon 등(2001a)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적했듯이 부모가 모두 없는 학생이 부모가 모두 있는 학생에 비해 28% 정도 음주 경험률이 높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가 없는 학생의 경우 음주나 흡연과 같은 물질남용에 대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또다른 청소년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부모를 대신하여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의 세심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관심에 따른 음주 경험은 부모의 관심이 적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부모의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10%정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모의 관심에 따라 대중매체 속의 음주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었던 선행연구(Moon et al., 2001b) 결과에서 보듯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야말로 자녀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겠다.

가정분위기에 따른 음주 경험은 가정생활이 화목한 학생이 불안한 학생에 비해 13%정도 음주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는 학생이 불안한 가정생활을 하는 학생에 비해 음주 경험률이 높았던 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볼 내용이라 생각한다.

부모의 음주 여부에 따른 음주 경험은 부모가 술을 마시는 학생이 마시지 않는 학생에 비해 11%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음주여부에 따라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갖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듯이(Moon et al., 2001b) 부모가 음주를 하는 경우 부모가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음주에 대한 생각이 덜 부정적일 것이라 본다. 또한 첫 음주시 동반자로서 부모가 41%를 차지했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음주를 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음주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어 음주에 노출될 기회가 좀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의 미래 음주 의사에 있어서는 Moon 등(2001a)의 연구에서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 앞으로 음주를 하겠다는 비율이 13.4%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를 하겠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유경험자 중 앞으로 음주를 하겠다는 응답이 Moon 등(2001a)의 연구결과에서 20.7%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14.6%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주 경험 유무가 미래 음주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의 음주 경험은 72.8%로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알코올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음식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알코올 경험율은 날로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의 양상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생들에게 알코올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솔하게 제시하고,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심어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알코올에 노출될 수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알코올에 의존하기 쉬운 환경의 학생들에 대한 우선관리가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음주하는 모습을 가능한 한 삼가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해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가정에 알림으로써 학교와 가정이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에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충북 U군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중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72.8%였고,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은 27.2%였다.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처음 음주를 시작한 시기로는 3학년과 4학년 때가 37.8%로 가장 많았고, 처음 음주 장소로는 가족행사나 모임이 41.0%로 가장 많았다. 처음 마신 술로는 맥주가 37.5%로 가장 많았고, 처음 음주 시 느낌으로 맛이 없었다가 58.1%였으며 음주 동기로는 실수로 마셨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주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3.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은 거주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인 경우, 부모의 관심 정도에 대해 적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가정의 분위기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 음주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4. 대상자의 미래의 음주 의사는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이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앞으로 음주를 하겠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음주 경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5%, 음주를 하겠다 6.5%, 잘 모르겠다 23.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학생의 음주 경험은 성별이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과 학교가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lliance to defeat Korean University Student Alcohol Problem (1998).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on drinking problem for youth and college students.
- Bae, O. G. (1994). *A Study on Smoking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 in Chonnam*. Master's thesis.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Gwangju.
- Black, J. (1994). Alcohol and young adolescents, *Education & Behavior*, 24(2), 135-136.
- Han, S. H. (1998). *A study on the factors in relation to attitude and behavior of drug abuse in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Haydock, Avril RMN (1998). Alcohol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Nurs Stand*, 13(6), 43-46.
- Jung, H. Y. (1998).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onsiderations for its remedies*. Master's thesis.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Joung, Y. B. (1989).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Adolescent Drug Abuse and Drug Dependence*. Master's thesis. The Inha university of Korea, Incheon.
- Kan, K. A., & Kim, Y. H. (2000). A Research on an Actual State of Drinking and Smok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Child Health Nurs*, 6(1), 51-59.
- Kim, K. B. (1991). Prevention of youth's drug misuse & abus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rean anti-drug campaign center (1998). Analysis on youth's drug abuse behavior.
- Lee, G. C. Kim, Y. J., & Sin, Y. G. (1997). Research on youth's smoking and drinking. *Korean J Pediatr*, 40(3), 307-317.
- Ministry of Culture & Sports (1993). Research on youth's drug abuse and counterplan.
- Ministry of Culture & Sports (1996). Research on youth's drug abuse and prevention counterplan.
- Moon, J. S., Park, H. R., & Lee, E. S. (2000). Direction in Health Education of Drinking Preven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of Korea Comm Health Nurs Acad Soc*, 14(1), 68-79.
- Moon, J. S., Yang, S., & Yoo, Y. S. (2001a). Asurvey on status of drin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J of Korea Comm Health Nurs Acad Soc*, 15(1), 73-82.
- Moon, J. S., Yang, S., Song K. A., & Park, S. N. (2001b). A Survey on Knowledge and Attitude in Drink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J of Korea Comm Health Nurs Acad Soc*, 15(2), 285-300.

## Drin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 Rural Community

Lee, Inn Sook(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ikdong Colleg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valence of drinking behavior among elementary students, and the results may serve as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drinking prevention program. **Method:**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734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in five elementary schools in U county, North Chungcheong Provin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8 to December 20, 2003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PC for the descriptive and chi-square statistics. **Results:** Of these students, 72.8% reported that they had drunk alcohol. They reported that the first drinking started during the third and fourth grade (37.8%), at family gatherings (41.0%), and by mistake (36.0%). They reported that alcohol was tasteless when they first drank (58.1%). The drinking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 Similarl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residential area, parental attention, the home atmosphere, and drinking paren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rinking behavior. Among the non-drinkers, 70.5% intended not to drink and 6.5% reported they would like to drink in the futur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drinking prevention programs with considering the students' 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Drink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Rural community